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 '보류'

나주시가 주민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품질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준공) 승인을 '보류' 시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나주시는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대책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 4시까지 행정적 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건축물 준공 사용 승인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유 없이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주시가 서울의 한 대형 법률회사(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에 따라 승인 결정을 보류했다.

A로펌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성형RDF연료를 반입·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비성형SRF시설로 건설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료를 RDF에서 SRF로 변경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연료 생산지 변경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는 지난 2009년 환경부와 나주혁신도시 지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업무협약 협의를 체결한 전남 6개 시·군(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에서만 생산·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료부족 문제를 이유로 난방공사가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권SRF연료 반입을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에 명시하고 이를 승인 받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얻은 나주시는 지난 4일 오후 8시에 난방공사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민원 보완 통지' 공문을 통해 승인을 보류 조치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에 연료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상 오염물질 저감 대책 방안과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1월31일까지 제시를 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방안제시가 없을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전남도와

승인 단계서 '환경영향평가법' 다툼 여지 발생 난방공사에 대책방안·서류 첨부 등 보완 통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이해 당사자 간 회의'에서는 '광주권 비성형SRF 반입금지'를 비롯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대기환경 오염 우려로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한 나주혁신도시에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지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들어섰다.

대책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도 되기 전에 일부 읍·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가 급하게 이뤄져 정작 현재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반발하고 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이 잠정 보류된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4년 4월 LNG첨두부화보일러 착공에 이어 2015년 5월 설계변경을 거쳐 SRF 발전시설을 착공, 최근 준공해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난방용 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 등을 위해 건립된 발전소 건설에는 242억원이 투입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고심 끝에 모든 절차를 뒤로하고 주민 건강권 추구를 전제로 한 대책위 요구를 수용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보류시켰다"면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아닌 시장이 안고 가겠으며, 상호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보다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100여 공직자 그리고 발대위를 비롯한 나주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유규 기자



전통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초겨울 날씨를 보인 5일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 옷 작업장에서 안재호 씨와 주민들이 토종 참웃나무에 불을 그을려 전통 방식으로 옷 직액을 채취하고 있다.

“광주 아동복지교사·사회복지사 정규직 전환해야”

민주노총 공공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5일 아동복지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교사와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은 돌봄 서비스 향상, 사회 불균형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광주 5개 구청에 고용된 200여명의 아동복지교사는 광주시 지역 아동센터에 파견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며 "8명의 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교사의 행정을 관리

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연합회는 '내년부터 아동복지교사 채용권을 센터로 줄 것, 각 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한 명씩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 파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동센터의 주장은 교사와 아이들을 차별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채용의 객관성도 확보되지 않고 센터가 교사에 갑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업무도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일부 센터에서는 아동복지교사에게 내년 고용문제를 놓고 회유하고 있고, 구청 공무원에게 '파견을 받지 않겠다. 교사 인건비를 센터 보조금으로 넘겨달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동센터연합회는 채용권 주장과 파견 거부를 철회하고, 시와 5개구는 지역사회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은홍 기자

‘주차시비’ 쇠파이프 휘두른 30대 등 2명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조모(39)씨와 김모(2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로에게 주먹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출근시간에 차량 통행로를 막아둔 김씨에게 이동 주차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뒤차를 빼도 된다"고 말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조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조씨도 자신의 차량에 있던 쇠파이프로 김씨의 허벅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인호 기자

해녀가 잠은 소라 훔친 중국인 2명 검찰송치

제주에서 해녀가 잠은 소라를 훔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인 류모(44)씨와 왕모(34)씨 등 2명을 붙잡아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시 여촌계 식당 앞 해안가에서 해녀가 잡아놓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소라 10kg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현장에서 해녀들에게 붙잡혔으나 왕씨는 도주해 추격에 나선 해경에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류씨와 왕씨는 각각 지난 2014년 7월, 2015년 4월에 관광비자를 받고 제주도에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후 가까운 해안가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공모한 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해경은 생계형 어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절도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쫓기다 가스총 자해 男 치료 중 사망

지난 2일 경찰에 쫓기다 가스총으로 자해해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47)씨가 이날 오전 3시에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가스총으로 자해해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체포를 시도했지만 A씨는 가스총으로 경찰을 위협했고 끝내 가스총을 입에 넣은 뒤 방아쇠를 당겼다.

A씨는 자해 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자해 당시 가스총에서 발사된 이물질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뇌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뇌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가스총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수익 빙자 6억 원 챙긴 일당 7명

고수익 제테크를 빙자해 하위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6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A(27)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나 밴드에 '고수익 제테크,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성 글과 5만 원권 대발 사진을 게재했다.

이들은 광고성 글을 보고 연락해온 현직 교사 C(38)씨에게 "스포츠 경기 분석가인데, 경기결과 예측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하위로 제작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경찰조사 결과 고교동창인 이들은 총책, 인출책, 운영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